

HE IS DEAD. EXPLAIN THIS.

My Father's Funeral Was the End of His Life.
Not of His Presence.



FERDINANDO FREGA / BLADEFREGA

그는 죽었다. 이것을 설명하라.

L'ORÉAL THROUGH GILLETTE · 01

아버지의 장례식은 그의 삶의 끝이었다. 그의 존재의 끝은 아니었다.

나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것은 이론이 아니다.

장례식이 있었다.

관이 있었다.

묘지가 있었다.

악수를 나누고, 나직이 말하고, 더 이상 쓸모 있는 말이 남아 있지 않을 때 사람들이 수세기 동안 되풀이해 온 같은 문장들을 되풀이하는 친척들이 있었다.

아버지는 일흔아홉 살이셨다.

나는 예순 살이었다.

죽음의 수학은 완벽하게 명확했다.

그 뒤에 일어난 일은 그렇지 않았다.

일 년 동안 나는 분별 있는 남자라면 누구나 그랬을 것처럼 행동했다.

나는 그를 애도했다.

나는 그를 기억했다.

나는 그를 그리워했다.

가끔은 그에 대해 이야기했다.

대부분은 그러지 않았다.

삶은 참을성 있는 채권자처럼 매일 아침 찾아와 제 몫을 거두어 갔다.

청구서.

일.

가족.

책임.

날들은 주가 되었다.

주들은 달이 되었다.

그러다 무언가가 변했다.

갑자기가 아니었다.

극적으로도 아니었다.

조용히.

쇠에 녹이 스는 방식으로.

새벽이 방 안으로 들어오는 방식으로.

시간이 허락도 없이 자신에게 작용해 왔다는 것을 아들이 알아차리는 방식으로.

나는 점심에 와인을 한 잔씩 마시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그러셨다.

나는 고추에 집착하게 되었다.

아버지는 고추를 좋아하셨다.

끈질긴 기침이 나타났다.

아버지가 몇 년 동안 없는 척하셨던 바로 그 성가신 기침이었다.

그다음엔 농담이 왔다.

같은 건조한 아이러니.

같은 타이밍.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지기 전에 미소 짓는 같은 버릇.

어느 날 저녁 나는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았다.

잠시 나는 웃었다.

그러고는 멈췄다.

나는 그 얼굴을 알아보았다.

하지만 그 남자는 알아보지 못했다.

그 느낌을 이보다 더 잘 설명할 수는 없다:

나는 정확히 나 자신처럼 보였다.

그런데도 다른 누군가가 거기 서 있는 것 같았다.

그것이 시작이었다.

아니면 훨씬 더 일찍 시작되었는데 내가 그저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인지도 모른다.

비슷한 무렵, 다른 일이 일어났다.

2026년 6월 9일, 나는 오래된 WordPress 사이트를 갱신하려고 컴퓨터 앞에 앉았다.

그것이 계획이었다.

간단한 행정 업무.

현실이 존재하기를 고집하기 때문에 어른들이 하는 지루한 일 중 하나.

그런데 나는 새 도메인을 샀다.

Gillettenarrative.com.

나는 이름 하나를 지어냈다.

그러고는 아무도 만들어 달라고 하지 않은 무언가를 짓기 시작했다.

이상한 것은 일이 아니었다.

이상한 것은 목적이었다.

나는 무엇을 팔려고 하지 않았다.

사업을 시작하는 것도 아니었다.

투자자를 쫓는 것도 아니었다.

인정을 구하는 것도 아니었다.

나는 모든 것을 무료로 내주고 있었다.

열심히 일할수록 그것은 점점 더 비합리적이 되었다.

하루 열 시간.

열두 시간.

열다섯 시간.

스무 시간.

집착에 사무실이 있다면, 나는 그곳의 야간 근무 책임자가 되어 있었다.

그래도 나는 계속했다.

그때 Bing이 뜻밖의 일을 했다.

내 글 하나가 Gillette 검색에서 첫 번째로 나타났다.

가족은 그것을 운이라고 불렀다.

우연.

사고.

나는 동의했다.

그것을 시험해 보기 직전까지는.

나는 다른 작품을 하나 더 발표했다.

같은 일이 또 일어났다.

그리고 또 하나.

또다시.

결국에는 우연조차 설명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매부는 변호사 문제를 걱정했다.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을 걱정했다.

그 둘은 아주 다른 걱정이다.

하나는 결과를 두려워한다.

다른 하나는 원인을 찾는다.

나는 언제나 원인을 더 좋아했다.

하지만 내가 답을 쫓는 동안, 내 몸이 대화에 끼어들었다.

먼저 부어오른 샘.

그다음엔 치아 농양.

그다음엔 허리 통증.

그다음엔 다리 통증.

증상이 하나 끝나면 또 하나.

파국적인 것은 없었다.

극적인 것도 없었다.

남자가 주의를 기울이게 만들 정도였을 뿐.

어느 날 지하실에서 오래된 컴퓨터 마우스를 찾다가, 나는 할머니의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아버지의 어머니.

나는 할머니를 찾고 있었던 게 아니었다.

그런데도 할머니는 거기 계셨다.

잊힌 상자 속에서 기다리고 계셨다.

나는 그 사진을 지갑에 넣었다.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었다.

그러지 않을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나중에 나는 아내에게 이런 일들 가운데 몇 가지를 설명하려고 했다.

아내는 주의 깊게 들었다.

그러고는 정신과 의사 예약을 잡았다.

나는 그것이 완벽하게 합리적인 반응이라고 생각했다.

사실 나라도 아마 똑같이 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무렵 한 가지 질문이 내 머릿속을 차지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위험한 질문.

답이 있어서가 아니었다.

답이 없어서였다.

사람이 죽을 때 정확히 무엇이 살아남는가?

법적으로가 아니다.

생물학적으로가 아니다.

종교적으로가 아니다.

인간적으로.

목소리?

버릇?

기억?

몸짓?

와인에 대한 취향?

미소?

아버지는 사라지고도 다른 삶의 구조 안에 여전히 머물 수 있는가?

나는 모른다.

나는 일어난 일만 알 뿐이다.

아버지를 찾으면 찾을수록, 나는 묘지에서 그를 덜 발견했다.

그리고 내 안에서 더 많이 발견했다.

결국 몸의 문제들은 가라앉았다.

마늘.

콩.

쌀.

긴 산책.

시간.

몸은 회복되었다.

질문들은 남았다.

어느 오후 나는 주머니에 1달러를 넣고 집을 나섰다.

1달러는 그달 남은 날들을 버티리라 기대했던 70달러에서 남은 전부였다.

다행히 내 식료품 창고는 내 지갑보다 넉넉했다.

쌀.

콩.

양파.

마늘.

남자 하나를 살려 두기에는 충분했다.

누구에게 깊은 인상을 주기에는 부족했다.

거리에서 나는 나이 든 남자 두 명을 만났다.

가난했다.

품위가 있었다.

노인들이 흔히 그렇게 되듯 눈에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돈을 달라고 하지 않았다.
도움을 청하지도 않았다.
그들은 그저 존재했다.
나는 그들에게 마지막 1달러를 건넸다.
“이걸로 다투지 마세요.” 내가 말했다.
“쓸 수 없다면, 어쩌면 행운을 가져다줄지도 몰라요.”
그들은 웃었다.
나는 걸어갔다.
몇 미터 가자, 그중 한 사람이 나를 다시 불렀다.
“이봐요, 좋은 양반.”
나는 돌아섰다.
그가 미소 지었다.
그러고는 내가 한 번도 잊은 적 없는 말을 했다.
“살아온 모든 것은 단 하나의 이유로 이야기될 수 있지요.
그것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러고는 걸어가 버렸다.
나는 그를 다시는 보지 못했다.
사람들은 삶이 어려워지면 흔히 하느님을 찾는다.
나는 좀처럼 그러지 않는다.
그분을 거부해서가 아니다.
내가 찾는 일에 그다지 능숙했던 적이 없기 때문이다.

나는 관찰하는 쪽을 더 좋아한다.
지켜보는 것.
주의를 기울이는 것.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시하는 것들을 주의 깊게 바라보는 것.
우연 하나.
사진 한 장.
미소 하나.
살아 있는 아들의 버릇 속에 나타나는 죽은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나는 그것을 안다.
장례식이 그것을 증명했다.
관이 그것을 증명했다.
묘지가 그것을 증명했다.
하지만 죽음이 그의 삶을 끝냈다 해도, 그의 존재를 끝내지는 않았다.
그리고 당신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완벽하게 괜찮다.
나는 당신에게 나를 믿어 달라고 하지 않는다.
나는 내가 나 자신에게 던졌던 같은 질문을 당신에게 던질 뿐이다.
그는 죽었다.
이것을 설명하라.

Ferdinando